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㉑ 하택종(荷澤宗)의 신회(神會)



▶ 한줄 요약
하택 신회에 의하여 혜능이 '육조'가 되었고, 그로부터 조사선이 출현하여 중국불교의 주류가 되었다.

'육조현창 운동'으로 혜능 선사상 알려

〈六祖顯彰〉

동산법문(東山法門)은 당시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창립자인 도신(道信)의 선사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도신의 선사상은 수대(隋代)로부터 불교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천태학(天台學)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새로운 사상적 관점에서 '오문선요(五門禪要)'로 제창하였기 때문이다. 천태학은 남북으로 2백 년이 넘게 분열되어 발전한 불교학을 모두 종합하여 '오시팔교(五時八教)'로 통섭(統攝)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교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도신의 '오문선요'는 가장 긴요한 선요(禪要)만을 제창하였는데, 이는 중국인들의 사유양식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주역(周易)〉으로부터 나온 '앎이 간결하면 행하기 쉬움'이라는 '지간행이(知簡行易)'의 사유양식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신을 계승한 홍인 역시 '수본진심(守本眞心)'의 핵심적인 사상을 제창하였고, 신수(神秀)도 '대승오방편문(大乘五方便門)'으로 그 맥을 계승하고 있다. 특히 신수는 측천무후(則天武后)로부터 제도(帝都)로 초청되면서 이른바 "양경(兩京)의 법주(法主), 삼제(三帝: 睿宗·則天武后·中宗)의 국사(國師)"라고 칭해지며, 그의 사후에 제자인 보적(普寂)이 모든 승가를 통섭하는 지위에 오르면서 당시 불교의 주류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인의 또 다른 제자인 혜능(慧能)으로부터 수학한 신회(684~758)가 신수-보적 계열의 북종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혜능의 선사상을 널리 알리고자 목숨을 걸고 투쟁하였는데, 선종사에서는 이를 '육조현창(六祖顯彰) 운동'이라 칭한다.

신회의 '육조현창 운동'은 중국선의 정통성을 논하여 혜능을 중국의 '제6대 조사'로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수대(隋代)로부터 도교(道敎)에서는 종법제도(宗法制度)를 받아들여 도사들의 계보인 도통(道統)을 확립하였고, 또한 당대(唐代)에 들어서면서 유학에서도 도통설을 제창하였으며, 나아가 천태종 등의 불교 종파에서도 법계를 확립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중국선 계통에서도 법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는데, 당대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달마-혜가' 계통과 '도신-홍인'의 동산법문을 연결하여 '달마-혜가-승찬-도신-홍인'의 '5조'에 이르는 중국선 법계가 출현하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중국선 계열에서 '제6조'를 누구로 삼는가에 따라서 그 정통성의 소재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적자(嫡子)는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만, 나머지는 아무리 법이 뛰어나도 '산성(散聖)'으로 칭하며, 그다지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회는 자신의 스승인 혜능을 '육조'로 받들기 위해서 심지어 있지도 않은 사실까지도 날조하였는데, 결국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져 혜능이 '육조'로 공인되었으며, 후대에는 홍인 문하로부터 발생한 북종선 등의 기타 계열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혜능의 남종선 계열로부터 '조사선'이 일어나 중국불교의 주류가 되었던 것에는 바로 하택 신회의 공로가 가장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하택 신회의 생애와 '육조현창 운동'을 간략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신회는 후대에 조사선에서 '지해종도(知解宗徒)'로 폄하되었으므로 역대로 그의 저술 등이 사라졌으며, 〈송고승전〉 등에 전기가 실려 있지만 간략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근대에 돈황(敦煌)에서 〈신회화상선화록(神會和尙禪話錄)〉 등의 자료가 발굴되면서 신회의 생애와 사상이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한 자료에 따르면, 신회의 속성은 고(高)이고, 양양(襄陽: 현 湖北省 襄陽市) 출신이다. 어려서 스승을 따라 유학의 오경(五經)을 배웠고, 그 후에 노장(老莊)에 확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후한서(後漢書)〉에 실린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열람하고서 본향의 국창사(國昌寺)에서 호원(顥元)의 문하로 출가하였으며, 다양한 경전을 외워 암송하기를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게 하였다고 한다. 〈신회화상선화록〉에 실린 〈대승돈교송(大乘頓教頌)〉의 서문에 "유치과(幼稚科)에 있을 때, 산을 유람하며 도를 찾았다."라고 스스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아주 어려서 출가했으며, 제방을 다니며 "열반본적(涅槃本寂)의 뜻을 물었으나, 모두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한다.

"혜능, 달마선 전정한 계승자"
신수 거쳐 혜능 문하서 수학
목숨 걸고 혜능 남종선 선양



신회에 의해 혜능이 '육조'가 되었고, 그로부터 조사선이 출현하여 중국불교의 주류가 되었다. 사진은 선암사 조사당 혜능 선사 진영.

후에 옥천사(玉泉寺)의 신수를 찾아가 그의 문하에서 3년을 시봉하였지만, 신수가 측천무후(則天武后)의 명으로 제도(帝都)로 간 이후 조계의 혜능 문하로 갔는데, 이때 신회는 13세 혹은 14세의 어린 나이였다. 혜능의 문하에서 몇 년을 수학한 이후, "신회는 북으로 유행하여 견문을 넓혔으며, 서경(西京: 長安)에서 계(戒)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20세에 구족계를 받기 위해 북상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양경은 모두 신수의 제자인 보적을 중심으로 한 북종선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회는 이 시기에 북종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이후 경룡(景龍) 연간(707~709)에 신회는 다시 혜능 문하로 돌아왔으며, 이로부터 혜능에게 인가를 받고 은밀히 법을 부촉받았다고 한다.

혜능이 입적한 이후, 신회는 몇 년간 조계에서 활동하다가 개원(開元) 8년(720)에 황명으로 남양(南陽; 현 河南省 南陽市)의 용흥사(龍興寺)에 주석하였다. 이로부터 신회는 중앙정부의 고관들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는데, 관련된 자료에는 호부상서 왕거(王據), 예부시랑 소진(蘇晉), 남양태수 왕필(王弼), 낙양현령 서악(徐嶽) 등과의 문답들이 보인다.

이렇게 중앙 고관들의 지지기반을 확보한 후에, 신회는 개원 18년(730) 정월 15일, 활대(滑臺: 현 河南省 滑縣) 대운사(大雲寺)에서 무차대회(無遮大會)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조계 혜능이 달마선의 진정한 계승자임을 알렸다. 이러한 '무차대회'는 독고패(獨孤沛)에 의하여 기록되어 〈보리달마남종정시비론(菩提達摩南宗定是非論)〉의 제목으로 전해온다. 이에 따르면, 개원 18년에서 20년에 이르는 3년 동안 여러 차례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무차대회에서 신회는 북종이 정통성을 가질 수 없는 까닭을 첫째, 북종의 사상은 "마음을 모아 정에 들고[凝心入定], 마음에 머물러 깨끗함을 간하며[住心看淨], 마음을 일으켜 밖을 비추며[起心外照], 마음을 포섭하여 안으로 증득함[攝心內證]"을 추구하는 법으로, 이는 결코 '돈오'를 표방하는 남종의 종지라고 할 수 없음을 논증하고 있다. 둘째, 달마대사가 법을 부촉하며 가사(袈裟)를 전했는데, 신수에게는 이 '전법가사'가 없으므로 정통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선법은 "여래(如來)-가섭(迦葉)-아난(阿難)-말전지(末田地)-사나바사(舍那婆斯)-우바굴(優婆崛)-수바밀(須婆蜜)-승가라차(僧伽羅叉)-보리달마" 등의 "서천팔대(西天八代)"에 거쳐 전승된 사실을 신수가 알지 못하니, 정통이 아니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신회가 제창하는 두 가지, 즉 '전법가사'와 '서천팔대'는 여러 정황상 신회가 날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후대에 비록 '전법가사'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양한 자료에 실려 있지만, 이는 모두 신회 이후의 자료이고, 또한 '서천팔대'는 그 기간에 문제가 있어 후대에 '서천 28대'로 확대되고 있는 점으로부터 초기의 조통부법설(祖統付法說)이라고 평가되니, 신회가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상에 있어서는 신회의 주장이 정확하다고 하겠다.

'무차대회' 이후 신회는 천보(天寶) 4년(745) 병부시랑 송정(宋鼎)이 황제에게 상주하여 낙양 하택사(荷澤寺)에 주석하게 하였으므로 세간에서 '하택 신회'라고 칭하게 되었다. 하택사에 머물면서 신회는 〈현종기(顯宗記)〉를 찬술하여 혜능의 정통성을 밝혔고, 유명한 시인 왕유(王維)를 청해 〈육조능선사비명(六祖能禪師碑銘)〉를, 송정에게도 〈당조계능대사비(唐曹溪能大師碑)〉를 찬술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혜능의 정통성을 알리는 데 힘썼다. 이러한 까닭에 종밀(宗密)은 〈중화전심지선문사자승습도(中華傳心地禪門師資承襲圖)〉에서 "천보 연간 초에 하택화상이 낙양에 들어와 돈교(頓教)를 크게 일으키자 그때에서야 신수 문하는 방출(傍出)이며 법문은 점수(漸修)임이 드러났다. 이처럼 돈(頓)·점(漸)의 두 종파가 동시에 유행하자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선별키 위해 남·북으로 표시하였는데, 남종·북종의 명칭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신회가 북종을 공격하자 북종에서도 반격이 시작되어 천보 12년(753)에 조어사 노혁(盧弈)은 신회를 무고하여 현종(玄宗)이 익양(弋陽: 현 河南省 潢川縣)으로 좌천시킨 이후, 계속 여러 사찰을 전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안사(安史)의 난(755~763)이 발생하여 국가의 재정이 고갈되자 신회를 청하여 계단을 설치하여 도승(度僧)하게 하고 향수전(香水錢)이라는 세금을 받아 군비에 조달하였는데, 이는 안사의 난을 평정하는 데 절대적인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공로로 숙종(肅宗)은 신회를 궁으로 청하여 설법을 들었다. 이후 전란으로 소실된 하택사를 재건하도록 하였지만, 신회는 건원(乾元) 원년(758)에 형주(荊州) 개원사(開元寺)에서 입적하였다. 사후에 낙양 보응사(寶應寺)에 탑을 세우고 탑호를 "반야(般若)"라 하였으며, 시호를 "진종(眞宗)"이라 하였다. 이후 덕종(德宗)은 정원(貞元) 12년(796)에 칙령으로 선문 종지(宗旨)의 모범을 정하였으며, 전법(傳法)의 방계(傍系)와 정계(正系)를 가리게 하였고, 칙명으로 하택을 '제칠조'로 삼았다. 따라서 신회가 '칠조'가 되었으니, 당연히 혜능은 '육조'로 인정된 것이라 하겠다.

하택 신회에 의하여 혜능이 '육조'가 되었고, 그로부터 조사선이 출현하여 중국불교의 주류가 되었다. 비록 신회의 사상을 논하지 않았지만, 그의 〈신회화상선화록〉에서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회의 사상에는 '돈오'에 철저하지 못한 점이 명확하게 보인다. 이러한 까닭에 후대에 선사들로부터 '지해종도'로 폄하되는 빌미가 되었지만, 신회가 평생을 목숨을 걸고 혜능의 남종선을 선양하기 위해 바쳤던 노력은 분명하게 평가해야만 할 것이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 경기도 가평 사찰부지 28,768평 양도가 35억원 부지 구입후 분할하여 생수공장 유치가능
- 동두천시 전철역 10분거리 사찰부지 350평 양도가 3억9천만원(조금절충가능)
- 서울도봉구 도봉동 사찰부지 1,800평 양도가 24억원 전철역 10분거리 위치좋음

임법당 불단 / 석물일체 저렴하게 드립니다.
신화불사 010-6545-2020